

고흥군민 76.6% “군정 잘하고 있다”

정주여건 89.1%·복지정책 78.1% ‘만족’

농수축산업·주민복지정책 ‘최우선’ 꼽아

고흥군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군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 까지 3일간 실시한 군정 만족도 조사에서 군정 운영을 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군민 76.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군정 만족도는 남성 78.4%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여성 73.6%에 비해 높게 나왔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81.0%로 가장 높게 나왔다.

고흥군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해 군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군민사랑방, 들녘 간담회, 현장행정 등 적극적인 소통행정으로 군민 편의의 행정을 펼친 점이 군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정주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만족 51.7%, 대체로 만족 37.4%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89.1%에 달해 군민들이 고흥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만족도는 복지정책 만족도가

78.1%로 가장 높았고 생활안전 및 환경정책 만족도가 77.3%, 농수축산업정책 만족도는 77.0%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흥군 발전을 위한 6개 정책 분야의 중요도를 묻는 설문에는 농수축산업 27.1%, 주민복지 23.6%, 문화관광 15.5%, 인구증대 12.8% 순으로 나타나 군민 절반 이상이 농수축산업과 주민복지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흥군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가 29.5%로 조사됐고, 뒤를 이어 소상공인지원 21.7%, 농수축산물 판로확보 19.1% 순으로 나타났다.

고흥군 관계자는 “민선 7기 3년 반 동안 오직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을 군민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란다”며 “민선 7기 남은 기간에도 현장에서 군민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군민이 주인이 되는 고흥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등록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고흥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50%)와 자동응답 방식(50%)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이며, 표본추출은 2021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분포를 적용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겨울철 별미인 ‘장성 겨울 미나리’가 본격 출하된다. 사진은 장성한 미나리 농가에서 출하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장성군 제공

장성 ‘친환경 미나리’ 본격 출하

맛·향기 일품...노화방지 도움

겨울철 건강 지킴이 ‘장성 미나리’가 본격 출하된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밤에는 줄기가 잠길 정도로 물을 채웠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물을 빼내는 ‘발 미나리’ 방식으로 재배되고 있는 ‘장성 겨울 미나리’는 속이 짙아 아삭한 식감을 자랑한다.

특유의 향긋한 또한 풍성해 어떠한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 미나리는 고혈압, 변비,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피부 노화 방지와 콜라겐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무엇보다도 ‘장성 미나리’는 친환경 농업 재배로 유기농산물 인증까지 받아 안전한 섭취가 가능하다. 데치지 않고 생채로 먹으면 아삭한 식감과 함께 영양소 파괴 없이 먹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장성군에서 생산된 제철 미나리는 오는 4월 말까지 출하될 예정이다. 남면로컬푸드직매장 또는 한마음공동체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택배 구입도 가능하다. 구입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원예소 득과(☎061-390-8429)로 하면 된다. /장성=전일용 기자

순천만 달밤 야시장, 설 특별공연

코믹서커스 등 행사 다채

순천시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순천만 달밤 야시장에서 설 날 특별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공연은 저글링과 마술, 서커스 등을 접목한 코믹서커스,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리 마술쇼, 추위를 한방에 날려줄 파이아 퍼포먼스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추석에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세계질 차별화된 주제를 발굴해 문화공연에 접목하는 등 콘텐츠를 보완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사전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순천만 달밤 야시장이 시범운영

을 포함해 5개월 차에 접어들어 따라 현재까지 도출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순천시 지역경제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멋진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퍼포먼스와 음악공연을 준비했다”며 “달밤 야시장에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푸드트럭마다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방문객들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만 달밤 야시장은 지난해 10월 15일에 개장한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7,000여 명이 방문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가래떡 나와요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7일 오전 함평읍 한 전통 떡방앗간에서 설날 떡국에 사용할 가래떡을 뽑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나주, 오미크론 차단 ‘잠시멈춤’ 2차 캠페인

나주시가 설 명절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에 행정력을 총동원 하고 있다. 특히 나주시는 코로나19와 오미크론 확산 중대 고비처가 될 이번 연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나주시는 명절 대목을 맞아 영산포 풍물시장 일대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한 ‘잠시 멈춤’ 방역 동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3일 한전KDN사거리에서 이어 이

날 캠페인에는 정석규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나주시 공무원, 영산파출소, 이창동119소방센터 등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상인, 시민들에게 마스크와 전단지 배부했다. 특히 급속도로 확산 중인 오미크론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으로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도 진단 검사 받기’, ‘KF94이상 마스크 착용’, ‘명절 연휴 타 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 ‘백신접종 완료’ 등을 당부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해남, 청년정책 4개분야 59억 투입

해남군은 올해 청년정책으로 주거, 일자리·창업, 문화·교육, 복지 등 4개 분야, 41개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총 59억원을 투입해 적극 추진한다.

27일 해남군에 따르면 신규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13개 사업에 17억원을 투입해 청년의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취업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비롯해 저소득 청

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지원이 실시된다.

특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인대주택 수리비 지원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

일자리 창업 분야는 지역주도형 및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과 함께 해남형 청년창업 지원,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청년창업농 경영실습농장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해남=박병태 기자

영광, 지방소멸 위기 특별교육

영광군은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박진경 박사를 초빙해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27일 영광군에 따르면 작년 10월 정부에서 영광군을 포함한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호

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간부 공무원들은 집합교육으로, 그 외 직원은 청내 방송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해외의 인구감소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대응 사례도 다양하게 소개돼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영광=곽승호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무안 해제면 새마을부녀회, 설 맞이 방역활동

무안군 해제면 새마을부녀회가 설을 맞아 코로나19 방역활동을 27일 펼쳤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방역활동에 나선 새마을부녀회는 버스정류장, 탁미널, 은행, 마트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주민들에게 개인 방역수칙을 홍보했다.

강애순 새마을부녀회장은 “귀성객과

주민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3차 접종 홍보를 적극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진순 해제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방역 활동에 나서신 새마을부녀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장흥 치매안심센터-맑은기억정신의학 ‘협약’

장흥군 치매안심센터와 맑은기억정신건강의학과가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업무 협약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치매에 동반된 문제 증상을 개선하는 등에 최선을 다 할 계획

이다.

맑은기억정신건강의학과원은 1차 선별검사(CIST)결과 ‘인지저하자’·‘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을 대상으로 2차 진단검사(치매척도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생활적도검사 등)와 3차 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를 수행하게 된다. /장흥=이옥현 기자



순천산림조합, 고로쇠 채취 일손돕기

순천시산림조합이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서면 학구리 장척마을 고로쇠 채취 현장을 찾아 일손을 도우며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장을 포함한 산림경영지도원들은 고로쇠 채취를 위한 천공작업과 유채기 삽입 작업 등을 실시하며, 인력 부족과 고로쇠 수액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가에 일손을 보탬다.

조정숙 순천시산림조합장은 “일손 돕기가 임가에 드리는 근심도 겸여 올려 주기 바란다”며 “임업인을 위한 지도사업과 금융서비스에도 적극 노력해 임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천시산림조합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산림경영지도의 날로 지정해 사유림 경영지도를 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